

## 슬픔이 기쁨에게 | 정호승

수능완성 문학 214쪽

이 작품은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는 시이다. 슬픔을 부정적으로, 기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일반적 통념을 뒤집음으로써 타인을 향한 관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슬픔 기쁨 소외된 이웃을 연민하고 그가 겪는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마음

통사 구조의 반복 의지적 어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역설적 표현 : 자신의 안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함.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현실의 고난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세상에서 소외된 존재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너'의 이기적인 모습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일을 두루 살피는 자세, 즉 이타적인 자세

1~6행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는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 :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도움을 요청할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오직 자신의 안일만 돌보는 자세를 부각함.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죽을 때

① 이기적인 세태 속에서 고통받는 이가 겪는 상황을 과장하여 표현함.  
② 이웃의 죽음을 냉담하게 반응하는 각박한 세태를 나타냄.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조그마한 배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조그마한 배려도 배울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세태를 지적함.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자신의 행복만 중시하는 모습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르는 모습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주변의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누리는 진정한 기쁨으로서의 슬픔

7~13행 소외된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함.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해 '너'가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진정한 사랑을 지향하도록 이끌고자 함.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길 하며

슬픔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음을 의미함.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소외된 이웃의 고통이 극복될 때까지, 진정한 기쁨에 이를 때까지.

14~19행 진정한 연대와 화합을 위해 '너'와 함께하고자 함.



## 작품 다가가기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박애적
제재	슬픔, 기쁨
주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추구
출전	『슬픔이 기쁨에게』 (1979)

### 시상 전개 방식

- [1~6행]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는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  
 [7~13행] 소외된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함.  
 [14~19행] 진정한 연대와 화합을 위해 '너'와 함께하고자 함.

### 내용 요소

화자	'나(슬픔)'
시적 대상	'너(기쁨)'
상황	슬픔을 모르는 '너'에게 기다림과 슬픔을 주고자 함.
정서	비판, 의지적

### 표현상 특징

- 역설적 인식을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 의인화된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활용함.

###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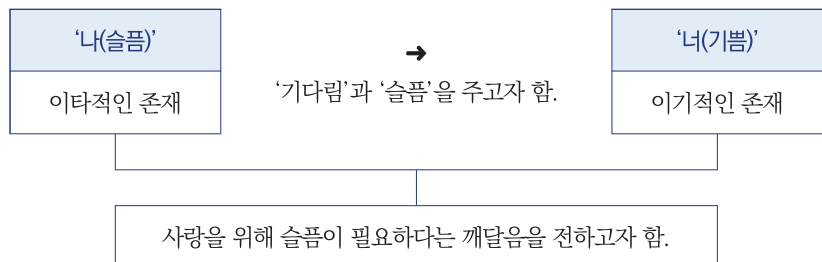
이 작품은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고, 각각 화자와 청자로 설정하여 슬픔에 대한 성찰에 기반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슬픔'으로 표상된 존재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온정의 소유자라면, '기쁨'으로 표상된 존재는 오로지 자신의 행복에만 주목하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자세의 소유자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작품은 '기쁨'이 보이는 삶의 자세를 비판하고 '슬픔'이 호소하는 삶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슬픔'은 우선 현재 '기쁨'이 보이는 자세를 가난한 이웃을 통찰하지 않는 비정한 마음, 어려운 처지의 이웃에 대한 인색함,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그마한 호의도 베풀지 않는 마음 등으로 날날이 지적하고 있다. 왜 '너의 사랑'과 '기쁨'이 문제시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슬픔'은 오직 '너' 개인에게만 집중된 '기쁨'을 소외된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바꾸려 한다.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서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슬픔'은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갖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슬픔의 힘'을 깨우치는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작가 알아보기

#### 정호승(1950~)

정호승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삶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그리고 슬픔을 수반한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시편들로 고요한 울림을 선사한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시인은 비극적인 현실을 직시하면서 슬픔의 정서를 많이 시화하였다. 그러나 시인은 비애의 감상에 젖기보다는 세상의 낮은 존재를 파스한 마음으로 끌어안으려는 의식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의식은 등단 초기부터 맹인 부부 가수, 혼혈아, 구두닦이, 녀마주이, 동남아치 소년, 피난민, 창녀, 머슴, 꾀추 등 현실에서 소외된 고통을 겪어온 민중들과 함께해온 모습으로 연결된다. 또한 시인은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슬픔 뒤에 오는 희망을 노래하며 시대를 성찰하고 있다.

### 한눈에 보기



## 내용 학습

### ▶ 슬픔과 기쁨이 보이는 삶의 자세

슬픔	기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태도</li> <li>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연민하는 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은 이익에만 관심 있는 태도</li> <li>소외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태도</li> </ul>

→ 이 시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연대감의 유무에 따라 ‘슬픔’과 ‘기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슬픔’이 보여 주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 ‘슬픔’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

### ▶ ‘추위’의 의미

‘추위’에 관한 배경	‘추위’로 고통받는 존재
겨울 밤 거리 살아온 추위 함박눈	할머니 동사자 추위에 떠는 사람들

→ 이 시에서는 ‘추위’와 관련된 **축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함박눈’ 역시 겨울의 추위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이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 ▶ 슬픔을 가로지르는 길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인용된 시구에서 ‘너에게도’라는 시어를 참조하면, ‘나’는 이미 슬픔에 빠져 있으며 기다림을 아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이때 ‘나’는 의인화된 ‘슬픔’이면서 ‘슬픔’과 어깨를 나란히 한 존재, 곧 시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너’에게 주려는 ‘슬픔’은 ‘나(=시인)’에게는 익숙한 ‘슬픔’이며, 이를 통로로 삼아 ‘나’는 ‘너’에게 사랑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는 길을 열어 주려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너’에게 소외된 이들이 고통을 겪는 현실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내가 아는 ‘슬픔의 힘’을 나누고자 한다.



## 깊이 이해하기

### 심화 학습

#### ▶ '슬픔'을 마주하는 시인의 자세

정호승의 첫 시집인 『슬픔이 기쁨에게』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 희망에 대한 동경**을 서정적인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 제목에 '슬픔'이 들어간 작품이 연속하여 다섯 편이나 실려 있는데, 시인은 이 시편들에서 **소외된 계층**을 향해 따스한 애정의 눈길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슬픔을 극복하는 힘,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동경하는 힘**을 키우려는 의식을 드러낸다.

'이 어렵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략) 나는 이 시대의 한 사람 시인으로서 얼마만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지'라고 후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시인은 슬픔을 지닌 사람들과 그 **슬픔을 나누기 위해** 마음을 다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슬픔을 넘어 설 힘을 찾기 위해 **슬픔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리하여 '슬픔'은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존재 조건**으로서 받아들여지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로서 논의된다. 같은 맥락에서 시인은 "모든 진정한 사랑에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은 슬픔을 어머니로 하고 눈물을 아버지로 한다. 사랑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고통 때문이다."라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 ▶ 교환 관계, 그 너머의 삶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인용된 대목에서 '할머니'는 '굴'을 제공하고 '너'는 '굴값'을 지불함으로써 **교환 관계**로 얽힌다. 이 관계에서 '굴값'을 깎으면 '너'는 이익을 얻고, '너'의 이익만큼 '할머니'는 손해를 본다. 교환은 물(物)과 물이 이어지는 관계이므로, '너'와 '할머니' 사이에서 '굴'과 '굴값'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교환 관계에서 '너'는 추위에 떠는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사물로만 정의되는 이 냉정한 관계를 도구적 관계 그 이상의 것으로 들여다본다. '나'는 '할머니'의 삶에서 소외된 '슬픔'을 느끼고, '너'에게서는 오직 자기만의 '기쁨'을 포착한다. 그리하여 '할머니'와 '너'의 관계는 단순한 사물이 얽힌 것을 넘어선다. '너'의 '기쁨'이 '할머니'의 '슬픔'을 가중하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너'가 '굴값'을 깎으면서 '기쁨'을 얻기보다는 먼저 남의 아픔에 '슬픔'을 느끼기를 바란다.

#### ▶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예술은 인간 감정의 구현체로, 예술을 매개로 예술가와 감상자는 감정을 교류하고 삶의 지향점을 공유한다. 예술은 감상자에게 유, 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술은 인간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테면 예술은 감상자에게 연대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환기함으로써 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슬픔이 기쁨에게」를 꼽을 수 있다. 시인은 슬픔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대감을 환기**하며 **공동체 의식을 촉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청자인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상은 '너'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시인의 메시지인 셈이다. 시인의 메시지에 감화받은 독자는 이타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고, 더 나아가 이기적인 세태를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 OX로 확인하기

- ❶ 화자는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O X
- ❷ 이 작품은 일상적 의미에서 벗어난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전하고 있다. O X
- ❸ 이 작품은 촉각적 심상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O X
- ❹ '슬픔의 평등한 얼굴'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 무관심한 태도를 형상화한 시어이다. O X

## 함께 볼 작품

### ▶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 기후 현상을 삶의 모습과 연결 지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긍정적 삶의 자세를 그려낸 작품이다.
-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시선을 드러내고,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슬픔이 기쁨에게」와 유사하지만, 두 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함박눈'이라는 시어가 상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설일」, 김남조

- 눈 내리는 겨울날의 풍경을 관조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슬픔이 기쁨에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정답 X, O, O, X

### 정답 해설

- ❶ 화자는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너'에게 깨달음을 전할 뿐, 친밀감을 드러내려 하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❷ 이 작품은 '슬픔'과 '기쁨'의 일상적 의미에서 벗어나 각각 이타적인 삶의 자세와 이기적인 세태를 의미하는 시어로 대립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❸ 이 작품에서 '추위'는 어려운 현실을 보여 주는 촉각적 심상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나 '동사자'와 같이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그려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❹ '슬픔의 평등한 얼굴'은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너'가 갖추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웃의 고통에 대한 관심과 연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